■ 새만금 간척지 '새 갯벌형성' 진위공방

방조제가 완공된 새만금을 항공에서 촬영한 모습. 한국농촌공사 등은 최근 방조제 건설로 인해 갯벌이 확산됐다고 주장한 반면, 환경단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30ha 새로 생겼다" Vs "수심 얕아지는 현상"

'간척사업은 오히려 갯벌을 확산시킨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갯벌이 사라질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방조제로 인해 새로운 갯벌이 형성됐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흥군이 40여년 전 방조제를 건설하면서 사라져버린 갯벌을 복원시키기 위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운하를 뚫겠다고 밝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갯벌 확산=새만금 방조제를 완공한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등은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바깥쪽의 갯벌이 지난 1994년 100ha에 불과했으나, 최근 130ha로 확장됐으며 갯벌의 높이

농촌公 "20년후 628ha 추가 형성"

역시 0.4~1.4m까지 새롭게 차오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군산 앞 금강 유역에서도 하구둑 수문을 작동하기 시작한 지난 1994년 이후 급격히 빠른 속도로 갯벌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과 외항의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30억~60억원의 준설(浚渫·하천이나 해안의 바닥에 쌓인 흙이나 암석을 파헤치는 작업)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새만금사업단'은 "제 4호 방조제 역시 바깥쪽에 갯벌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10년 후에는 238ha, 20년 후에는 628ha의 갯벌이 추가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토사흐름 막혀 쌓인 것"

◇일시적인 현상일 뿐=그러나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인 '부안 새만금생명평화모임' 등은 "새로 생겼다고 주장하는 갯벌은 1호 방조제가 계화도 쪽에서 연안을 따라 흐르던 주수로를 막아 조수가 약해져 쌓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심이 얕아지는 현상을 놓고 농촌공사 측이 갯벌이 형성됐다고 허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연중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정월 대보름(2월23일) 때는 평소보다 수심이 약 1.5m나 더 얕아지기 때문에 갯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갯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또 방조제는 토사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운하 뚫는 회진항=한편 장흥군은 최근 관덕방조제가 막고 있는 간척지에 ▲길이 4천m ▲폭 200m ▲깊이 20m의 운하를 뚫어 갯벌을 복원시킨다는 계획이다.

운하를 뚫으면 득량만의 조류가 간척지로 들어와 회진항 앞쪽과 관덕방조제 양 옆에 쌓인 진흙더미를 쓸어가 버릴 것이라는 게 군의 예상이다. 회진항에는 과거 200ha가 넘는 '기름진' 갯벌이

회진간척지 갯벌 복원 관심 증폭

형성돼 있었으나, 지난 1965년 관덕방조제가 들어선 이후 진흙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또 방조제 바깥에도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회진항의 사례가 먼 훗날 새만금의 모습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방조제 내부의 갯벌은 모두 사라지고, 외부에도 전혀 갯벌이 만들어지지 않아 '죽은 땅'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전남대 지질학과 전승수 교수는 "방조제 바깥쪽에 형성된 갯벌은 계절적 요인으로 생긴 것이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갯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학원·영화관·노래방 30% '실내오염'

포름알데히드·이산화질소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법' 적용 검토

학원과 영화관,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10곳 중 최대 3곳의 실내공기질이 포름알데히드나 이산화질소 등 유해물질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학원 등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은 8개 시설군 424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8~32%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인 1㎥당 120㎍(마이크로그램·100만 분의 1그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기준치(1㎥당 500㎍)를 초과한 곳이 6~26%로 조사됐으며 ▲이산화탄소는 기준치(1천ppm) 초과 비율이 6~30% ▲미세먼지는 기준치(1㎥당 150㎍) 초과 비율이 4~30%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호프집 등 주점은 이산화탄소 평균오염도가 949ppm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높았고 기준 초과율은 16.7%를 기록했으며, 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기준 초과율도 23.3~2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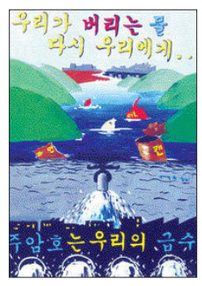
일반 학원의 경우 이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의 오염 기준 초과율이 각각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갈비집 등 음식점은 이산화질소 오염기준 초과율이 30.2%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실내공기질 조사가 이뤄진 영화관과 학원 등 규모가 큰 다중이용시설을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규제 적용 대상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주암호 살리기 포스터' 전시

화순 남면 다산미술관



다산미술관(관장 이판석)은 다음달 7일까지 화순군 남면 미술관에서 '제2회 주암호 살리기 포스터 그리기 대회' 입상 작품을 전시한다.

미술관에는 순천·화순·보성 지역의 초·중등부 학생이 그린 주암호 관련 포스터 400여점이 전시돼 있다.

대상 작품은 ▲'우리가 버리는 물 다시 우리에게…'(임은결·금당중 2년·사진) ▲'물이 아프면 우리도 아파요'(장예령·부영초 6년) ▲'깨끗한 주암호 환경이 웃는다'(강희주·동복초 4년) 등 3점이다. 연락처는 061-371-3443.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멘트 '6가 크롬' 함유 기준 신설

〈유해 중금속 일종〉

환경부 2008년부터

환경부는 시멘트에 포함된 유해 중금속 물질인 '크로뮴(6+)'(6가 크롬·Cr6+) 함유 기준을 2008년 30㎎/㎏, 2009년 20㎎/㎏으로 각각 신설, 업계가 자율적으로 저감 관리토록 유도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함유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멘트 원료 등에 포함된 크로뮴(Cr)이 시멘트 생성 과정에서 산화돼 유해성이 강한 물질인 6가 크롬으로 전환되며 6가 크롬은 발암성과 접촉성 피부염(자극성 알레르기), 2차 환경오염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14일)	
김상훈	224-0001
●법무사회 법률상담(14일)	
문광홍	239-1809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